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8월 9일**

죄는 한 가지 사65:1-7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회사 때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질문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 -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번째 질문은 왜 나는 Nobody냐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알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 할 곳이 없으므로 말씀 잡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도자의 배경이 얼마나 어마 어마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영적 황제의 타임이 무엇인지도 이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은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을 망대가 되도록 잡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정하신 이정표대로 인생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Nothing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입니다. Nobody, Nothing 이니까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눈이 열리면 세계복음화가 절대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창조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이때 나타나고 지속하면 전도자의 배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전도자와 황제의 타임도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가난하여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답에 도달하고 미리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대 같은 언약이 되므로 여정도 보이고 이정표도 미래의 언약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리하여 이미 승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시대의 황제가 됩니다. 자기가 보내진 지역의 영적 황제가 되고 자기가 보내진 분야의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 황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요셉이 되고 모세가 되었습니다.

1. 죄는 한 가지

1) 본문 7절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는 동일한 것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 죄나 그들의 조상들이 한 죄가 꼭 같은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한 죄는 한 가지(One) 곧 사단을 따라 간 죄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제목을 그들의 죄는 한 가지(One)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2) 원리를 따지면 우리의 죄는 원죄 하나 입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원인이며 원죄 없이는 자범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자범죄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원죄가 이미 함께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것이며 본문의 그들이 당시에 하던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원죄에 눈이 열리면 근원적인 답이 납니다.
3) 여기에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문제가 왔습니다. 누구나 아무 잘 못 없이 저주를 받게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 여기에서 네피림과 바벨탑이 나오고 개인의 6가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원죄에 가장 근접하여 설명한 단어가 근본 문제라는 단어 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3직입니다. 죄는 사단을 따라가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 창3:15의 내용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들어오면 뱀의 머리는 가만히 두어도 깨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며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5) 그래서 본문 6절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은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결정하셨다는 뜻이며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심의 권세이고 기록되면 끝 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된 성경대로 하십니다.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2. 세계복음화

1) 본문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태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전도였고 그것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를 반복하여 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2) 그 다음 절 2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셨습니다. 굉장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6절에 이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 이렇게 직접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눈이 막힌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롬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언약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본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완전 차단하셨습니다. 보혈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가 언약이 된 사람은 전부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5) 우리가 뽑은 영적 황제들은 전부 하나 같이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자동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또 주십니다.

6) 말씀이 들오면 지속할 영적 힘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주시므로 그냥 말씀을 받고 따라 가면 모든 것이 성경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을 한 분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은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NOBODY와 NOTHING 을 해결하는 말씀을 주시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알고 인생 완전 역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